

# “지역여론 무시한 하향식 공천”

민주당 무안·신안 보선 김홍업씨 전략 공천 파장

예비후보들 “탈당...무소속 출마” 분노

DJ “아들 출마 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

민주당이 21일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를 전략공천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들과 일부 공직후보자심사위(공특위)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씨의 출마에 반대해왔던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의 결정에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안 후보를 내거나 공천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공특위와 중앙위원회 의를 잇따라 열어 무안·신안 보선에 김씨를 전략공천키로 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특위와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에 그쳐 결국 김홍업씨를 전략공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 결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김씨의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닌 전형적인 하향식 공천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전략공천은 자당의 후보가 타당의 후보에 비해 지지율 등이 뒤져 패배가 예상되는 경우 외부 인사를 영입, 승리를 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이 최근 무안·신안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와 김홍업씨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홍업씨는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공천신청을

한 A후보는 20%대 초반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B, C 후보는 각각 10%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열린우리당이 아직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높은 예비 후보를 제외하고 김씨를 공천한 것은 전략공천과는 거리가 먼 하향식 공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안·신안 지역 의 당 지지도가 50%를 넘어 다른 당이 후보를 낸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또 김씨의 전략공천과 관련 김 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고려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4·25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를 전략공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지역 민심보다는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 김씨를 공천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을 내세우면 지역 민심이 어쩔 수 없이 김씨의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김심’을 상징하는 김씨가 당 선진다면 추후 이뤄질 민주세력 대통합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과 민주당이 김씨의 연합공천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김씨 출마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김씨가 앞으로 (보선에서) 심판을 받아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현 전 무안군수는 “공당인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호산(사)통일농수산사업단 기획위원장은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한 것은 나머지는 틀러리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역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씨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공특위원직을 사퇴한 이상열 의원은 이날 “무안·신안지역을 포괄 당원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며 “특정인을 위한 전략공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김씨의 출마에 반대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송광운(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 북구청장 등 직원들이 21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서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북구청 직원 700명·주민 등 지지 서명



2012 여수박람회 100만인 서명운동 적극 동참합시다

### 사이클 릴레이 홍보 3일째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남 시·군 사이클 릴레이 홍보 및 서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일수가 광주까지 번졌다.

광주시 북구청 (청장 송광운) 직원 700여명과 주민들은 21일 구청앞 광장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서명을 하고 반드시 박람회를 유치하자고 다짐했다. 서명 참가자들은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파급효과가 광주에까지 미칠 것이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전남 22개 시·군 사이클 릴레이 홍보는 21일

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 첫 방문지인 보성에서는 군청 직원과 사회단체 대표, 군민 등 700여 명 서명에 참가하고 여수 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

나 11시20분 고흥군청에서 진행된 릴레이 서명식에서는 흥겨운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병중 군수를 비롯 군청직원과 군민 500여 명이 도열해 홍보단을 환영했다. 홍보단을 만난 군민들은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애쓰다’고 격려했으며, 2012년 여수 박람회를 상징하는 오색 풍선 2천12개가 하늘로 날아올라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오후 2시와 5시, 순천시청과 화순군청에서 열린 서명식에도 각각 500여 명이 참석, 박람회 유치 기원구호를 외치는 등 시·군민의 힘으로 여수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할 것을 다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실사 3주앞...막바지 점검

### 현지 준비작업 대부분 완료

여수엑스포 유치를 관가름하게 될 내달 9~13일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여수 현지실사 준비가 대부분 완료돼 유치위원회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김재철 위원장(동원그룹 회장)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엑스포를 여수에서 치러낼 수 있을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현지실사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실사단에 설명해야 할 14개 주제별로 리허설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9~13일 서울과 여수에서 진행될 BIE의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과 실마인 집행위원장, 사무국 직원, 다른 회원국 대표 4명 등 총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지실사에서 여수엑스포의 ▲주제

▲국제적·지역적 개최이유 ▲정부의 지원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 ▲운영·재정책임과 참가자인 ▲홍보계획 ▲관광객 수 ▲숙박대책 ▲개최지 부지와 교통여건 ▲박람회장 조성 및 사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 유치위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전조사서를 한 뒤 그 결과를 BIE집행위원회를 경유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박람회 개최결정은 12월 총회에서 BIE회원국 정부 대표들에 의한 투표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는 BIE회원국의 최종 지지 여부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유치위는 실사단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도록 엑스포의 여수유치가 결정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특히 바다에 대한 우려와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여수선언 채택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획이다. /박치영기자 unipark@kwangju.co.kr

## 기대 못미치지만 일단 환영

문화전당 부지내 2천석 공연장...지역 각계 반응

문화관광부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에 2천석 규모의 종합 전문공연장 건립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 예술계 등 지역 각계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단 문화부가 지역 여론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전문공연장 건립시 문화전당의 부족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높은 평가를 보였다.

그러나 전문공연장 건립이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문

화·관광 명소화 해달라는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여췌었다. 또 개방형 지하형태의 설계에 설계자의 컨셉과 다른 대형 건축물을 의도적으로 가미할 경우 문화전당의 작품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건축계의 의견도 상당해 당분간 문화전당 설계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문화·예술계는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흡족해 하고 있다. 특히 2천석 규모의 공연장은 건물 성격상 높이가

30~40m에 달하기 때문에 랜드마크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문화수도특위 위원장은 “문화부가 예전의 태도와 달리 지역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교수들도 설계자의 컨셉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 동구 문화수도 비상대책위원들은 “문화전당은 세계 최고의 건물, 건물 자체만으로도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문화부가 안이 주민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 지켜보고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9급공무원시험 [일반행정] 합격보장반 모집

합격보장반 모집

정원 30명! [제1남성반:10명] [제2여성반:10명] [남여통합반 10명]

개강 4월 9일 입학 7월 1일

학원사명	수험생 특징	학원장 초대강습	수강생 의무사항	수급공무원시험 출제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li>· 100% 합격률 보장</li> </ul>

전남이고 후문 건너편

메가 고시학원

☎ 226-5050